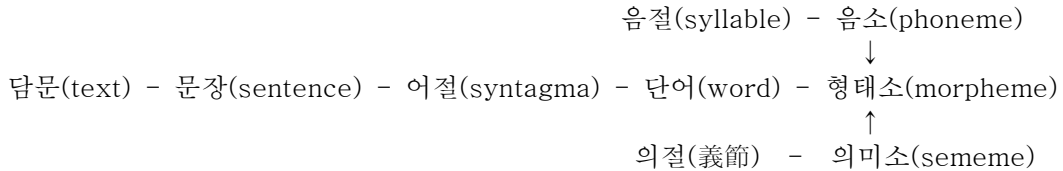


한국어의 형태소 분석

최호철(고려대)

1. 언어의 최소 단위는 음소나 의미소가 아니라 의미와 음성이 결합된 형태소.



2. 음소나 의미소는 단독으로 언어 단위가 될 수 없는 언어 성립 요소.

언어는 음성과 의미를 다 갖추고 있어야.
음성만 있는 언어? 허언? 헛소리?
의미만 있는 언어? 묵언? 마음?

3. 형태, 형태소, 이형태.

국민 여러분! 날개 업씨 날 쭉 이썬요? 벼테서는 색또 날개 돼요.

형태	형태소(집합) / 이형태(개별)		표기
궁, (궁, 국, 꺾)	/궁, 궁, 국, 꺾/	= {국}	‘국’
민	/민/	= {민}	‘민’
* ‘국/민’으로 분석하지 않으려면 ‘국민’으로 적어야.			
* 한/국/어, 단/위, 분/석, 의/미, 연/구, 독/립, 학/자/, 시/인, ...			
여러	/여러/	= {여러}	‘여러’
분, (뿐)	/분, 뿐/	= {분}	‘분’
날, (나)	/날, 나/	= {날}	‘날’
개, (깨)	/개, 깨/	= {개}	‘개’
업씨, (업, 엄)	/업씨, 업, 엄/	= {업씨}	‘업’
* 발음이 ‘업’과 같은 ‘업씨’은 잉여적 표기.			
* 끓이? 끓이? 「표준」은 ‘끓이’로 적고 [끓씨]로 발음.			
* 발음이 [끓시]라면 ‘끓이’로, [끓씨]라면 ‘끓이’로 적어야.			
* ‘끓이[끓씨]’보다는 ‘끓이[끓시]’로.			
이	/이/	= {이}	‘이’
나, (날)	/나, 날/	= {날}	‘나’
* 준말은 소리 나는대로 적어. 날+ 으니, 날+ 니? > 나니.			

ㄹ, (을) /ㄹ, 을/ = {을} ‘ㄹ’

* 관형사형 어미 ‘ㄹ’은 경음화 조건, 어간 말음 ‘ㄹ’은 유성음화 조건.

* 날것[날건] 말리거나 익히거나 가공하지 아니한 먹을거리.

날+것 ○, 나+ㄹ+것 ×.

날것[날건]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.

나+ㄹ+것 ○, 날+것 ×.

쭈, (수)	/쭈, 수/	= {수}	‘수’
있, (인, 인)	/있, 인, 인/	= {있}	‘있’
어, (아, 여)	/어, 아, 여/	= {어}	‘어’
요, (뇨)	/요, 뇨/	= {요}	‘요’
별, (별, 변, 뵈, 뵈, 뵈, 뵈)	/별, 변, 변, 뵈, 뵈, 뵈, 뵈/	= {별}	‘별’
에서	/에서/	= {에서}	‘에서’
는, (은, ㄴ)	/는, 은, ㄴ/	= {는}	‘는’
색, (색)	/색, 색/	= {색}	‘색’
또, (도)	/또, 도/	= {도}	‘도’
날, (나)	/날, 나/	= {날}	‘날’
게, (께)	/게, 께/	= {게}	‘게’
돼, (뵈)	/돼, 뵈/	= {돼}	‘돼’

* ‘돼’는 ‘되’와 ‘어’의 융합형으로서 더 이상 분석할 수 없어.

* ‘됐, 해, 했, 내/네(가), 내/네 (책).

요, (뇨) /요, 뇨/ = {요} ‘요’

4. 형태소 표시인 { } 안에 기술한 형태는 이형태 중에서 대표적·기본적인 것을 선정한 것이지 이형태들의 공통적·추상적인 것을 설정한 것이 아님.

5. 영형태, 영형태소.

날개+가<주체> 없이 : ‘가’는 유형태 의미 : ‘가’ 형태.

손발+이<주체> 없이 : ‘이’는 유형태 의미 : ‘이’ 형태.

날개/손발+∅<주체> 없이 : ‘∅(영)’은 무형태 의미 : ‘∅(영)’ 형태 ?

‘가’ 형태소 ○ : /가, 이, ∅/ = {가}

‘가, 이, ∅’는 각각 ‘가’ 형태소의 이형태.

‘이’ 형태소 ○ : /가, 이, ∅/ = {이}

‘가, 이, ∅’는 각각 ‘이’ 형태소의 이형태.

‘∅(영)’ 형태소 ? : /가, 이, ∅/ = {∅}

날개+를<객체> 펴고 : ‘를’은 유형태 의미 : ‘를’ 형태.

손발+을<객체> 펴고 : ‘을’은 유형태 의미 : ‘을’ 형태.

날개+ㄹ<객체> 펴고 : ‘ㄹ’은 유형태 의미 : ‘ㄹ’ 형태.

날개/손발+∅<객체> 펴고 : ‘∅(영)’은 무형태 의미 : ‘∅(영)’ 형태 ?

‘를’ 형태소 ○ : /을, 를, ㄹ, ∅/ = {를}
 ‘을, 를, ㄹ, ∅’는 각각 ‘를’ 형태소의 이형태.
 ‘을’ 형태소 ○ : /을, 를, ㄹ, ∅/ = {을}
 ‘을, 를, ㄹ, ∅’는 각각 ‘을’ 형태소의 이형태.
 ‘ㄹ’ 형태소 ○ : /을, 를, ㄹ, ∅/ = {ㄹ}
 ‘을, 를, ㄹ, ∅’는 각각 ‘ㄹ’ 형태소의 이형태.
 ‘∅(영)’ 형태소 ? : /을, 를, ㄹ, ∅/ = {∅}

* ‘∅(영)’ 형태소를 인정하게 되면 주체 ‘가, 이’ 형태소와 객체 ‘를, 을, ㄹ’ 형태소가 하나의 같은 ‘∅(영)’ 형태소로 묶이어 ‘가, 이, 을, 를, ㄹ, ...’ 등이 모두 ‘∅(영)’ 형태소의 이형태가 되는 모순.

* 모순 해결을 위하여 ‘∅1(영1)’ 형태소, ‘∅2(영2)’ 형태소, ... 등으로 구분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?

* 따라서 ‘∅(영)’ 형태소 ×

* 이형태로서 ‘∅(영)’ 형태는?

* 이형태는 조건 변이여야, ‘∅(영)’ 형태는 자유 변이여서 이형태 설정의 원칙에 어긋나.

* 이형태 설정의 원칙에 어긋나니 형태 설정 불가.

* 형태 설정 불가하니 ‘∅(영)’ 형태 설정도 불가.

* 따라서 ‘∅(영)’ 형태 ×

* ‘∅(영)’ 형태, ‘∅(영)’ 형태소 설정 불가하니 이웃하는 형태와 맺는 관계로 기술.

날개/손발 없이: 주술 관계로 기술.

날개/손발 펴고: 객술 관계로 기술.

6. 허형태(=공형태), 허형태소(=공형태소).

조+ ㅂ<∅>+ 쌀 : ‘ㅂ’은 유형태 무의미 : 허형태(=공형태) ?

안+ ㅎ<∅>+ 맑 : ‘ㅎ’은 유형태 무의미 : 허형태(=공형태) ?

소+ ㅇ<∅>+ 아지 : ‘ㅇ’은 유형태 무의미 : 허형태(=공형태) ?

허형태소(=공형태소) ? : /ㅂ, ㅎ, ㅇ/ = {ㅂ}? {ㅎ}? {ㅇ}?

‘ㅂ, ㅎ, ㅇ’은 허형태소(=공형태소)의 이형태.

* 형태는 의미가 있어야. 의미 없는 형태는 분석 불가.

* 의미가 없는 것과 의미를 모르는 것 구별.

* 형태 분석이 불가하니 허형태(=공형태) 설정도 불가.

* 따라서 허형태(=공형태) ×

* 허형태(=공형태) 설정이 불가하니 허형태소(=공형태소) 설정도 불가.

* 따라서 허형태소(=공형태소) ×

* 허형태, 허형태소 설정 불가하니 이웃하는 형태와 함께 그 형태소의 이형태로 설정.

조~조ㅂ, 안~안ㅎ, 소~송